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uestion & Answer

Q 농약의 사용법에 대한 정보는 확실히 농가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까?

A 농약은 정해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킴으로서 안전이 담보됩니다. 농약의 사용법은 용기나 포장에 첨부된 표기내용(라벨)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농약 고유의 성질이나 상태 외에 등록 신청시에 제출되는 약효, 농작물에의 약해시험, 안전성에 관한 시험성적 등을 기초로 사용자, 작물, 농산물, 환경 등에의 영향을 배려한 필요불가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상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농약에는 「주의환기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농약은 물론입니다만, 농약은 새로운 시험결과 등에 의해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무리 사용에 익숙해진 농약이라도 사용에 앞서서는 반드시 표기내용(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농약회사도 표기내용(라벨)을 보다 읽기 쉽고, 알기 쉽게 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적정사용에는 표기내용(라벨)이 그 지침이 됩니다. 적정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설명한 각종 팸플릿 등을 농약회사나 농협 등에서 발행하고 있으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있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Q 농가가 정해진 대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만?

A 농약관리법 제21조(보관·진열 및 판매의 금지) 및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제23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서는 부정·불량농약의 보관·진열 및 판매하는 행위와 허위 및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등록되지 않은 부정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극히 일부로써 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견해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농약관리법이 엄격히 개정되고, 농약 사용자의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농산물의 안전」, 「농가의 안전」 및 「환경의 안전」면에서, 표기내용(라벨)에 따라 사용량, 사용방법을 지키고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한다는 의식은 정착해 왔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농가의 농약안전사용 의식이 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농약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에의 잔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할 때는, 보호장비(마스크, 보안경이나 고무장갑 등)를 착용하게 되어 있지만, 여름철에 두꺼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에 목장갑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약 사용시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도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일상적인 주의환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살포 중의 중독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습관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